



제목	The Armenians in Modern Turkey: Post-Genocide Society, Politics and History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I.B. Tauris
발행일	2017. 9. 30.
저자	Talin Suciyan
출판도시	London
페이지수	304
ISBN 또는 ISSN	978-1788310918

내용 요약

『현대 터키에서의 아르메니아인: 집단학살 이후의 사회, 정치, 역사』는 1915년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아르메니아 집단학살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터키 국가 내에서 살아가는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기록이다. 검열과 집단학살에 의한 죽음 입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터키 국가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책이다. 터키의 아르메니아 공동체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저자 수시안은 터키 공문서, 아르메니아 국회 회의록, 개인 일기, 회고록, 구술, 신문, 연보, 잡지,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지속적인 박해를 유도한 조례와 법조항 등 1차 자료를 활용하여 터키 현대사 속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이 겪었던 경험을 엮었다.

책은 1장 '이스탄불과 지방에 남아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사회적 조건', 2장 '법적 맥락', 3장 '국가 감시와 반아르메니아 운동', 4장 '1944~1950년 가부장적 선거 위기'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주요 논제는 터키 내부에 남아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의 디아스포라 과정이다. 저자에 따르면, 재산 몰수, 아르메니아 여성 생존자들에게 일상화된 납치, 차별과 사회적 억압, 여행 금지, 특정 직업 금지, 강제 군복무, 비이슬람교도에게 부과되는 부유세 등의 관행은 집단학살과 터키의 부인, 그러한 부인의 제도화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저자는 1923년 이후 터키 국가 정책의 목표가 자국 내에 있는 아르메니아 공동체의 존재를 법적, 제도적으로 폐지시키는 것이었다고 결론지었다. 가부장적인 선거 위기는 그러한 구조적 말살 정책의 결과였다는 것이다.